



# 위대한 인민을 키운 어머니당에 영광을!

은 나라 강산에 걱정의 파도가 일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구절구절,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 절절하신 음성! 지금이 시작 된단의 심장에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통과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흔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길기 히러주시는 그 품에 삼가 드린 최대의 영광과 감사의 인사를 고르고있는 이 나라 아들딸들입니다.

하진만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먼저 인민에게 인사를 보내시는 이 세상 류예없는 격정의 화폭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쌓으면 저 하늘끝에 닿을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이 10월에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도의 정을 안고 당을 따라 걸어온 70년 력사의 갈피갈피를 펼친다.

이 당의 평범한 사람들이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시대의 선구자, 참된 인간전경형으로, 세상에 가장 존엄하고 힘있는 인민으로 자라난 불멸의 이야기를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로 정히 엮어 위대한 우리 당에 삼가 드린다.

## 1

인민!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이 제일먼저 찾는 부류이다. **«나약한 힘으로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딪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은 우리 당이었다. 인민과 무를 마주하고 그들의 가슴에 애국의 불, 혁명의 불을 지펴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공지높은 70년이었다.»**

그 력사의 첫 기수를 뒤돌아볼 때 우리 인민 누구나 잊지 못하는 한상사의 사건문헌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령군의 한 농민과 담화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문헌이다. **«제 손으로 거둔 쌀 30가마니를 나라에 바치겠다고 하는 농민을 기쁘게 받들었다.»**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그를 만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애국미를 안고 온 사람과 해방을 맞은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향로 가들음물해하시었다. **«해방후 물라보게 달라진 인민의 생활이 그의 모습에 어땠고 온 나라에 태동하는 애국적열정이 그가 안고 온 애국미에 담겨져있었다.»**

그것이 못내 기쁘시어 수령님께서 그의 소행을 새 조선 농민의 본분을 자각한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친히 그를 데리고 데리고 가시어 소박한 점심식사로 함께 나누시었다.

감격의 시연은 삼시에 방방북으로 퍼져갔다. 수많은 농민들이 김제원의 뒤를 따라나섰다. 서해북방과 분계연산마을에서, 동해바다기 농촌에서 너도나도 달구지머지 자동차며 기차의 차량에 쌀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려왔다. 그 거대한 흐름은 이 땅에 애국미한담은이라는 력사에 류예없는 애국운동의 불길로 타번졌다.

인민의 새 나라에 베킨 승결과를 더해주는 그 뜨거운 애국적성에 의하여 나라의 첫 종합대학이 일떠서고 혁명의 끝자루비상성의 원동장인 만경대혁명학원의 만년초석이 다져지지 않았었다.

당창건의 첫 기수에 서부터 김제원과 같이 평범한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박한 진정을 애국이라는 송고한 세계에 울려세우시고 그들의 작은 발걸음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은 큰걸음,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하신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그 손길아래서 낳았고 기극자도 모르던 평강군의 한 농촌녀성이 단 석달만에 글을 깨치고 온 나라에 문명퇴치운동에 호소한 선구자가 되였으며 강선명의 이름 없던 용해공도 천리마에게 조의의 기수로 자라나는 극적비약을 맞이하였다.

좋은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항상 인민들속으로 들어가고서 한명한명의 선구자를 찾아내실 때마다 더없는 기쁨에 넘치시던 심정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책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나의 생활은 매일 내 시간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어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서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론하고 생활을 론하고 미래를 론할 때이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동지로, 스승으로 지어 하느님까지 여긴 위인들이 있었는가.

한평생 인민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운명도 미래도 함께 하는것이아말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골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들께서만 찾으실수 있는 인생의 락이고 보람이었다.

인민과 무를 마주하는것을 그리도 좋아하시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그리도 크나큰 희열을 느끼시는 진정된 인민의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셨다가서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근로대중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왔으며 력사의 류예없는 고난과 시련도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승리적으로 헤쳐왔다.

잊을수 없는 주체 88(1999)년, 정성욱선수가 제 7차 세계특상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경에서 우승을 쟁취한 소식은 온 나라가 환희에 휩싸인 그때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에게는 정성욱선수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김일성민족의 자랑, 민족의 대정사를 안아온 영웅, 우리 조선의 훌륭한 딸, 김팔영 영웅의 위훈에 못지 않은 성과,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였어도 급박성에 얽혀놓아도 아깝지 않다! ...

우승의 성과도 귀중하시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박차며 힘차게 추가지는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친 것이 무엇보다도 자랑고 대견하시었다.

베를린의 하늘가에 휘날린 공화국기발, 그것은 그 어떤 시련도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세울수 없으며 선군조선은 반드시 이기고야만한다는것을 세계에 웅변 력사적선언이었다. 정성욱은 고난을 헤쳐며 승리를 향해 전속으로 달려나가는 조선의 기상, 영웅적인민의 상징이었다. 그 도 또한 기상, 불굴의 투지로 돌진한다면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빛나는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할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정성욱영웅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하시는 한편 여러 분야의 선구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시어 전당이 그들처럼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시었다.

논비사나를 자강평에서 새밭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하여 장군님께서 하리고 하신대로만 하면 기어이 승리의 새봄이 온다는것을 실현으로 확증한 박옥희, 천길 지하막장에서도 수도 평양의 불빛을 가슴에 안고 총성의 순간순간을 수놓은 제대군인한부 김유봉,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선구자적기치를 놓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본보기 투사 허우경, 태업을 위한 오늘에 살고 조국의 푸른 숲에 순결한 향기를 물어온 산림감독원 리용환, 청춘도 한생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학구의 길에 정그러 다 바친 참된 과학자 현영라!  
조선혁명에 또 하나의 시대가 개척되었다.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고 두번 농사, 새밭농사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강자들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천만의 개척자들, 누가 보진 말건 고귀한 탐과 열정을 바쳐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꾼 무수한 애국자들, 탐구의 배낭을 지고 혈통별로, 란전으로, 들끓는 현실로 달려간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찾아 내세워주신 강계정신의 창조자와 영부순군인가정을 비롯한 시대정신의 세력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더 훌륭히 성장하였으며 때때, 천배로 다져진 인민의 힘으로 조선혁명은 다시 벅찬 활기를, 도약기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에 가장 성스럽고 빛나는 기념비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인 연대로 자라난 천만군인의 모습이며 당을 따라 한걸음 걸은온 그들의 자력자극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의 걸음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한 힘은 곧 인민의 위대한 힘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가르치시는 조선로동당 70년의 력사적총화, 그 백전백승의 근본비결을 알리는 10월의 메아리로 이 땅을 울리고 온 세계를 진감시킨다.

## 2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  
그 부름은 삶의 원천과도 같이, 행복의 요람과도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선구자들의 한생의 메아리로 울린다.

선구자가 하나의 푸른 거목이라하면 그 거목을 지어주는 토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

나어린 처녀선동원인 리진자동무가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 인간개조의 선구자, 붉은 선동원의 빛나는 삶을 받아안은 사연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주체 50(1961)년 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나가시어 당총회를 지도하시었다. 그때 나어린 선동원이었던 리진자동무는 맨 뒤쪽에 다소곳이 기대어있었다. 회의도중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성동무들도 한번 토론해주시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연단에 나온 리진자동무는 뒤에서 반향들을 이끌어온 자기의 소박한 정점을 그대로 이야기하였었다. 그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를 감동시켜 동무가 바로 훌륭한 교양자라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범을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선동원이라하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하였던 리진자동무, 그의 크지 않은 소행에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당의 호소에 선함으로 호응해나선 농촌처녀의 깨끗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읽으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신것이였다.

리진자동무가 농촌리당총회의 작은 연단에서 영광의 삶을 받아안았다는 신봉에서 나사자한 화진원의 딸인 김학실동무의 남다른 위상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학실동무를 처음 아낀것은 출판보도물을 통독하였을 때, 제사공장 조사공인 그가 자기 것들을 공작적으로 제일먼저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고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쳐세우기 위하여 자전하여 옮겨간 사실을 아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은 깊어졌다. 한 내성동무의 소행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정에서 발휘되는 집단적혁신과 함께 또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인간개조사업의 태동을 감쪽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기념보고대회의 휴식시간에 김학실동무를 데리고 부르시어 인간개조의 첫걸음을 떼며 불타고 그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었다.

인민대중속에서 훌륭한 모범의 싸을

찾아 내세우실 때마다 더욱 성장한 인민의 모습, 그와 함께 더 큰 보복을 내질것을 조국의 전진을 내다보신 우리 수령님들이시었다.

선구자!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근한 혁명동지, 충직한 혁명전우의 또 다른 부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당과 혁명의 부름에 남다른 화답해나선 선구자들과 인연을 맺으신 그날부터 점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주시며 한평생로 품들어 키우시었다.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선구자중의 한사람인 전용원동무의 삶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선구자들사이의 혈연적유대가 얼마나 뜨거웠던것인가를 력사에 새기는 교과서이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주체 45(1956)년 12월의 그날 수하한 작업반차원으로 일어난 당이 제시한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고 말씀드려있던 그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천근한 동지로 여기시었다.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와 력사적인 연대로 강선제강소 전용원작업반들이 처음으로 밝기한 이 훌륭한 운동은 불과 1천만방안에 온 나라에 확대되었다고 하시며 평범한 용해공의 이름을 나라의 대진군운동과 결부시켜 불러주시고 그로부터 몇해후 제 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도 진행될 때에는 주석단에 앉았으며 그를 불러 일으키시어 이 동무가 전용원동무라고,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꽃을 든 동무라고 단정히 불러주셨다. 직접 소개해주신 우리 수령님, 그가 어느 한 뜻깊은 연회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이 동무가 우리 나라의 천리마영웅이라고 하시며 외국자의 벗들앞에도 내세워주신 그이시었다.

정명 그것은 당의 혁명전사, 시대의 선구자로 변함없는 삶을 빛내어나가도록 고무해주고 떠밀어주시는 천리마비의 웅성길은 전경이 아니었던가.

그 믿음과 사랑속에 전용원동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였고, 1970년대에는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강선속도의 창조자로 이름떨쳐졌고 1980년대를 이어 1990년대에도 변함없이 최강대를 역세게 뛰어넘고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과학자, 영웅관리직장, 영웅직로통계급으로 자라난 그 70년 력사속에 이름없는 비옥과학자였던 김삼현동무의 상징적 자욱도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그가 우리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는 때로 부터 영웅, 공로자로 치우까지 온 2년!  
그 나날 실패와 고초도 많았던 그의 과학연구사업의 첫머리는 지지자, 보조자가 되시어 성공의 열매를 맺어준데 힘입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은사는 우리 당의 선구자력사의 갈피에 또 하나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이 땅의 선구자들의 스승이 되시고 자아로는 어머니, 천근한 동지가 되시어 세대와 년대들 이어 줄기차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릇된 정력적인 령도 가 있어 우리 혁명은 거센 천 대하마강 굽임없이 전진 또 전진해왔다.

1990년대 초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천군상임관리소 소장인 정춘실동무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알게 되시었다.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천지지도를 보좌하시는데 갈피 만나보시였던 순박한 판매원천녀, «우리 가정수집»운명을 잘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그가 얼마전 자강도를 찾으신 수령님께 또다시 기쁨과 만족을 드린것이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실성의 모범, 참다운 인민의 총부근 의 모습을 그려보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를 따라 배우는 운동을 벌일때 대한 말씀을 펼치시었다. 정춘실동무는 이렇게 시작하였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주체 96(2007)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지지도의 길에서 정춘실동무를 또다시 만나주시고 단발머리치녀시절부터 일흔살이 되여오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총실같은 한걸음 걸은온 그에게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내성혁명가, 참된 인민의 총부근이라는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애와 림정은 정춘실동무와 같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전용원, 정춘실동무들과 같이 우리 당력사에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의 선구자로 삶을 빛내인 애국자들이 끊임없이 태어난것은 혁명투쟁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중시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성장대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마음껏 휘감았을 때 우리 인민은 수령님들께서 대고조어로 부르시던 거창한 투쟁의 불길이 되고 기술혁명과제물 내놓으시던 무궁무진한 창조성의 샘, 지혜의 저수지가 되었으며 오직 하나 당의 뜻을 받드는 그 길에 일원단심의 자력자극을 한생도록 수놓아졌다.

뜨거운 정과 열, 헌신과 로고를 다해 자기들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우리 인민은 정명 무엇을 드리었던가.

수십년전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내성천리마수가 전체 참가자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천리마위장을 달아드리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눈부신 금발메달도 아니고 천리마기수라던 누구나 다는 위장을 달아드린 그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탄 미소를 지으시어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나도 오며 천리마를 타는구나.»  
천리마위장을 번쩍이는 대회참가자들을 경건케 바라보시어 하신 그날의 음성은 지금도 메아리쳐서 우리 가슴을 흔든다.

들어보자, 사람들아!  
이 땅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오신분, 수천수만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장엄한 천리마대진군의 기수정단으로 되게 하신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 하늘같은 공적은 말없이 불어오고 인민이 드린 너무도 작고 소박한 천리마위장을 그릇된 정에 넘치시어 그처럼 무가있게 받으신 우리 수령님.

인민이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린 그날의 천리마위장은 오늘날 눈부신 빛날보 력사의 위훈을 새긴다.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야말로 붉은 당기발을 높이 드시고 천만대오를 이끄시어 혁명의 열고 힘찬 길을 헤쳐오신 영웅중의 영웅, 선구자중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이다!

## 3

승리의 10월, 영광의 10월!  
조선로동당을 따라 세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걸은 이 뜻깊은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사기와 필승의 신심은 하늘에 닿았다.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추겨 우리들 얼마나 멀리 달려왔고 이 땅에 이루어놓은 기적과 승리를 들은 또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한것인가.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들 전두에 높이 모시고 집총같이 달려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영광의 길이었다. 원수님들의 품에서 더욱 땀배처럼 우리 조국의 무적의 힘, 더욱 불라보게 달려진 인민의 눈부신 성장이 있다.

돌이켜보자, 우리 원수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백사의 생생길을 헤쳐갈 결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뜨거운 믿음과 정에 넘쳐 바라보셨던 과연 누구들이었는가.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될 첫걸음의 어느 불남경에서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철저히 평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세상에 있어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지하여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자신처럼 믿으시고 품들어 키우시였으며 하늘처럼 내세우신 인민, 바로 그 위대한 인민이었다.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지난해 11월 어느 아침 인민군부대 판하 18호수산업소 일꾼들과 총일꾼들은 너무도 뜻깊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온 것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진공뿔프를 타고 물보라를 세게 날라리며 열없이 따오겨내리라는 불고기록으로 시간이 흐름수록 더더욱 높아지는 불고기산을 호탕하게 바라보시어 얼마나 훌륭한 풍경이요, 오늘 오지 않았으면 후회할만 했으리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어시었다.

보기 드문 불고기대풍을 이룩했다는 소식! 그러도 불고기 반가우시어 머나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들에게 불고기를 보여드리고 그로써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는가 아닌가.

이날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리고 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항상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당력사의 철리이다.

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탐사행군대 성원들을 뜨겁게 맞이하시고 백두의 실한봉속에서 그들과 한영어가 되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그 감격의 화폭속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투쟁을 끝까지 완성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민군대 력사의 돌풍도, 갈바람도 앞장에서 뚫고나가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라는 그의 뜻깊은 당부가 깃들여있어 눈길 아니던가.

금주계속인종합식료공장과 한 인민군부대산하 석막대시양언어종어장장 박산비대 언어양사업소, 1116호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부강조국 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맡아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올해에 세차례나 찾으신 백두전진, 천만군민을 찾아 가고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유흔관철의 앞장을 세워주시는 선구자였다. 애국자집단애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며, 청년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완공한 우리의 영웅적전진선자들도 있다.

혁명의 성상 백두산을 눈앞에 우러르며 수령님들사우의 성세, 애국의 성세를 쌓아가는 청년동력대원들의 피와 땀, 위훈을 세상에 물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시대로도 값없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를 안고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도모소 나오시어 10월의 천리마를 웃가자를 날리시며 백두대산군기가 제법제법 울리도록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10여년간을 걸치는 자연과의 간고한 대적전투에서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당을 결사옹위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많은 배를 보냈었습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풍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청춘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연세 기둥들입니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율성이 강하고 혁명적, 투쟁적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들의 명장들의 대우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물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입니다. ... 상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천진전진자들의 가슴가슴이 격정의 눈물로 젖어들던 그 시각 인민은 또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의 영웅청년선화가 되었던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창조된 위대한 기둥들.

청년들을 조국청사에 걸이 뒀고 애국자, 영웅들로 키우시러 한평생의 로고와 실험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사상은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더욱 땀배처럼 이 땅에 백두산청년강국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유흔관철전제로 부르시며 최후승리를 위한 대진군의 전두에 힘차게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전향을 모르는 그의 힘과 열정은 어디서 추겨오셨는가.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일꾼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을 공로로 세우고 최후의 영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밟은것이나 같습니다. 오만자루, 십만자루의 땀을 많이 땅대밭을 갈화하고 애국충신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이 나의 입무이고 내가 인민들로부터 밟는 영광입니다.»**

자신을 다 바치시려도 이 나라 인민을 훌륭하고 역세게 키우고 그래서 우리 조국이 바로 세계의 천군으로 돌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 따라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선 선구자로 투쟁의 기발을 들고 발구름들이 나아간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인가.

선구자!  
이 부름과 함께 인민은 또 한번 강하게 고이였다.

민리에서 천리마의 기상으로 나래치온 인민, 시련의 언덕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으로 추쳐져 세계를 굽어본 인민이 또다시 힘차게 내달려 불과 4년도 못되는 기간에 웅건 하나의 시대, 하나의 세대와도 맞먹는 눈부신 변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70년의 언덕에서 또다시 신들 메를 조이고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0월명령의 뜻깊은 연설을 마감하신 《불굴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께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의 메아리가 되성처럼 울려나다.

우리 원수님께서 부르신 인민 단세의 웨침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가장 열렬한 축하이고 성스러운 표창이다. 천만군민이 세대와 년대들 이어 마음처럼, 피를처럼 간직하여야 할 당의 고귀한 믿음을 이며 사랑이다.



주체의 당기를 백승의 가치로 높이 들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 비료 증산의 동음속에 울려오는 삶의 메아리

## 남 흥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 지배인이었던 김명철 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승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로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쫓는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길에 우리는 당과 수령을 깨끗한 맑은 물과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온 일군들의 자욱자욱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얼마전까지 남흥청년화학연합 기업소 지배인으로 사업하다가

순직한 김명철동무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김명철동무는 주제 102 (2013)년 1월부터 헌직에서 사업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나라의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생산에 이바지하는 실로 많은 일을 해놓고 우리결을 떠나갔다.

그의 고결한 삶은 당의 신임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어떤 실력과 실천력을 발휘해야 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떤 불꽃은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오르려는 일군이 있었다. 김명철 동무였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있던 시각 가장 위험한 곳에 담뚱이 뛰어들려는 지배인은 다른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에워싸고 만류했다.

《위험합니다. 지배인동지는 밑에서 전투를 지휘해주시시오.》

그들을 둘러보며 김명철동무는 말했다.

《동무들, 당앞에 걸리다네 생산 공정건설을 빨리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것이 이 마지막일군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지우에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한도 또한 그는 기둥을 타고 올랐다. 지배인과 함께 공무보수 부문 일군들도 다른 기둥들을 타고 올랐다. 아찔한 공중에서 지배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대형차가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황구조물이 아니었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맡은 파제를 기어올라 수행하기 위해 불타는 남흥로동자급의 충정의 마음과도 같았다.

나름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지붕의 우기작업은 한 하루동안 계속되었다. 남흥로동자급은 기둥성 3점온실박막생산공정을 제1기기에 훌륭히 일떠세우고 주체102(2013)년 6월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둥을 드리웠다.

그는 제기되는 문체들을 놓고 회의를 하고 이따금 한번씩 현장에 내려가 실적을 알아보는 일군이 이어졌다.

《지배인동지는 기둥성 3점온실 박막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전투 기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까. 지금도 총력된 눈을 예에 뜨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현장 한복 구석까지 점검을 하던 지배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공무보수부문의 어느 한 로동자의 이야기, 바로 그속에 오늘날 대동지의 기억속에 남은 참된 일군의 모습이 비쳐있었다.

두해전 3월 봉헌단팍의 어느 한 막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다.

《지배인동지가 여기까지 들어와 꼭 탄을 케야 합니까?》

《석탄이 없어야 어떻게 비료 산을 생각할수 있겠소. 오늘 여기에 와서 한바탕 땀을 흘려보내 반부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주의농촌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비료를 가축사육 실어보낼 때마다 남흥로동자급이 어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반부들이었다.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남흥로동자급의 지원금과 전투적인 인사를 안고 막장으로 찾아온 김명철동무에게 반부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석탄은 걱정 말고 비료만 팽팡

생산해주시시오. 이 점은 석탄들을 모두 새하얀 비료로 만들어 달란말입니다. 하하하...》

화산에서 뜨겁게 오고간 목소리, 그것은 석탄전선과 비료전선이 또 한번 뜨겁게 피줄을 잇는 소리였다.

와신, 김명철동무는 이 두 글자를 인생의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살았다. 나라의 비료생산은 당과 국가앞에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김명철동무의 삶이 높고 깊었다.

어제 알수 있었으랴. 그때 김명철동무가 아들이 너무도 심해 잠자리에 들자마자 무겁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김명철동무는 혼연히 웃음지며 차에 올랐다. 글자의 대규 모기게제작까지 통성을 쫓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헌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였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하루에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 것을 통성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통음이 높고 울려오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난 4월 기둥성 3점온실 박막생산공정대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연구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식을 줄 모르는 심장을 지닌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 불치의 병이 생명을 움켜쥐고 대오와 함께 살고 대오와 함께 전진하던 김명철동무에게도 끝내 최후의 시각은 다투고오야말았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하반신마비까지 겹쳐져 언덕우깁던 사나이가 쓰러지게 되었다.

새 시비년도 비료생산에 위한 대보수가 마감되는데서 다그쳐 지고있었다. 김명철동무는 또다시 울려오던 증산의 통음속에 자기의 목소리로 합치고있었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피와 땀을 비료생산에 위해 바치고있었다.

지난 9월 어느날 연합기업소 공무생산과의 한 공정현으로부터 공구가 부족하여 비료생산공정보수기일이 연장될 것임이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명철동무는 그에게 적지 않은 자금을 꺼내주었다. 병치로에 쓰러진 일군들이 모자란 것이었다. 그것은 무척추적인 공구를 해결해달라고 지배인이 이야기 할 때 그는 필적 뛰었다. 하지만 김명철동무의 부탁은 너무도 절절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수 있겠소. 이것으로 나의 피땀을 대신할수 있다면, 비료생산공정보수전투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것이 없소.》

《지배인동지!...》

지난 9월 26일, 순간순간 당정책결사관철을 노련한 김명철동무의 심장은 50살이라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고통을 멈추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쓰러지고말았다고, 나의 생을 얼마간이라도 더 연장해줄수는 없나

그고 나어린 간오원치너에게 눈물을 머금고 호소했다. 김명철 동무였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몸으로 뜨겁게 그어안고 간 남흥의 대학화학공업기지에서 지금이 시각도 하얀 비료가 쏟아지고있다.

비료, 그것은 땅에 묻힌다. 자기 한몸을 장그려 녹여 땅에 지양분을 주고 열매를 떠받친다.

그는 비록 우리결을 떠났지만 사회주의대지에 뿌린 그의 피와 땀은 나날이 풍요해지는 이 땅과 더불어 깊이 남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김명철동무의 희생정신을 보고받고싶고 그의 유해를 철사봉에 안치하도록 하라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정평한 로동자였던 자기를 결속력을 키워 연합기업소를 책임진 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신임에 김명철동무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였다.

그는 인민에게 한계 생산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조인로동자들에게 당한은 수령과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또 하나의 고귀한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지난 9월 28일 김명철동무의 유해가 철사봉에 안치되었다. 그의 아들 김명철동무가 아버지처럼 한생 당에 충직한 전사로 살아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다.

김명철동무는 비록 우리결을 떠나갔지만 그가 무릎 꿇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남흥사람들의 대오속에 있다. 그 힘찬 발걸음소리와 함께 비료증산의 통음은 우리 조국의 하늘까지 더 높이 울려오게 된다.

본사기자 명홍성 본사기자 김충수

## 나의 위치 - 화선!

이 나라 공민 누구에게나 조국앞에 지닌 책임감이 있다. 한 직종에서 수십년간 일한 로동자의 가슴속에도 그 책임감이 소중히 간직되어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과학자의 신념에도 바로 그 책임감이 비껴있다. 더우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선을 맡은 일군의 책임감은 보물공민과 달라야 한다. 그것은 실천이기에 당을 받드는 책임감이 의미여야 한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운으로 풀고 제논으로 직접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을 한 일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연합기업소에서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공무보수 부문 초급당일군인 김명철동무의 추억이 아니다. 비료생산현장에서 만난 로동자들이 보수 부문 기능공, 연합기업소 기술자들도 지배인에 대한 취재기에 온 우리에게 이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그중에서도 두해전 기둥성 3점 온실박막생산공정을 일떠세울 때의 지배인의 모습을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증언회담자가 잊지 못해 회고했다.

《나리에는 온실내농사열풍을 일으키는 당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업은 비료생산과 함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또 하나의 거창한 투쟁이었다.

수십m높이의 기둥을 여러개나 세우고 수만장의 블록을 축조한 공간에서는 여러대의 화학분해에 해당하는 덩치큰 설비가 조립되고 있었다. 기둥성 3점온실박막생산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리는 남흥로동자급, 그대오의 일군에 김명철동무가 서있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분초도 쫓고서 누구나 현장에 붙어살다시피 하며 신발벗을 사 이도 없이 일했다. 그 격렬한 투쟁은 지붕의 우기작업에 들어서서 절정을 이루었다.

무게가 10t을 훨씬 넘는 지붕을 중진하는 방법으로 조립한 나들이 걸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흥사람들의 배짱에 맞지 않았다.

《지붕을 땅에서 조립하여 단면에 올려놓읍시다.》

김명철동무의 이 호소는 달리는 살수 없는 남흥사람들의 선택이었다. 지상확대식으로 조립된 지붕을 기둥기차로 올리려는 순간 되었다. 지붕이 높이가 30m 나 되었다. 네 기둥중 한 기둥으로

두해전 3월 봉헌단팍의 어느 한 막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었다.

《지배인동지가 여기까지 들어와 꼭 탄을 케야 합니까?》

《석탄이 없어야 어떻게 비료 산을 생각할수 있겠소. 오늘 여기에 와서 한바탕 땀을 흘려보내 반부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주의농촌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비료를 가축사육 실어보낼 때마다 남흥로동자급이 어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반부들이었다.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남흥로동자급의 지원금과 전투적인 인사를 안고 막장으로 찾아온 김명철동무에게 반부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석탄은 걱정 말고 비료만 팽팡

생산해주시시오. 이 점은 석탄들을 모두 새하얀 비료로 만들어 달란말입니다. 하하하...》

화산에서 뜨겁게 오고간 목소리, 그것은 석탄전선과 비료전선이 또 한번 뜨겁게 피줄을 잇는 소리였다.

와신, 김명철동무는 이 두 글자를 인생의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살았다. 나라의 비료생산은 당과 국가앞에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김명철동무의 삶이 높고 깊었다.

어제 알수 있었으랴. 그때 김명철동무가 아들이 너무도 심해 잠자리에 들자마자 무겁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김명철동무는 혼연히 웃음지며 차에 올랐다. 글자의 대규 모기게제작까지 통성을 쫓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헌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였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하루에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 것을 통성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통음이 높고 울려오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김명철동무는 혼연히 웃음지며 차에 올랐다. 글자의 대규 모기게제작까지 통성을 쫓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헌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였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하루에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 것을 통성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통음이 높고 울려오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김명철동무는 혼연히 웃음지며 차에 올랐다. 글자의 대규 모기게제작까지 통성을 쫓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헌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였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하루에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 것을 통성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통음이 높고 울려오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김명철동무는 혼연히 웃음지며 차에 올랐다. 글자의 대규 모기게제작까지 통성을 쫓은 그는 한주일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헌장에서 압축기부속품가공전투를 힘있게 벌였다. 남흥의 화학공업기지에서 온 하루에 크고 활달한 지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린 몸이라는 것을 통성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김명철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그해 비료생산공정대수는 성과적으로 끝났고 또다시 증산의 통음이 높고 울려오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당부했습니다. 헌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웃었지만 차안에선 너무도 아들이 실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까.》

지배인이아기가 나오자 눈곱부터 적시며 한 운전사의 이 말을 우리는 신토 취재수첩에 적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인 병마가 아니라 정신적인 병마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그대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병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의식하고 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하여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없이 없이 역세에 일어설 때는 원기왕성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다.

김명철동무는 1년 남짓한 기간 불치의 병과 싸우며 생활한 그때처럼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생을 어떻게 조국을 위해 담고 불태워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민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묘시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정쟁을 바치시옵소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몇해전 여름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오른 려객들중에는 평안북도인민병원 비뇨기과 의사 김성호동무도 있었다.

열차의 창가로는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움 모습 이 언뜻언뜻 비껴들며 려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지만 그만은 채서인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있던 일을 생각 하고있었다.

몇달전 병원에는 구장군에서 온 한 로동자가 입원하였다. 벌써 몇번에 노도협착증치료를 위해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나빴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집단의 방조속에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정쟁을 바치시옵소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몇해전 여름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오른 려객들중에는 평안북도인민병원 비뇨기과 의사 김성호동무도 있었다.

열차의 창가로는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움 모습 이 언뜻언뜻 비껴들며 려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지만 그만은 채서인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있던 일을 생각 하고있었다.

몇달전 병원에는 구장군에서 온 한 로동자가 입원하였다. 벌써 몇번에 노도협착증치료를 위해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나빴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집단의 방조속에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정쟁을 바치시옵소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몇해전 여름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오른 려객들중에는 평안북도인민병원 비뇨기과 의사 김성호동무도 있었다.

열차의 창가로는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움 모습 이 언뜻언뜻 비껴들며 려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지만 그만은 채서인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있던 일을 생각 하고있었다.

몇달전 병원에는 구장군에서 온 한 로동자가 입원하였다. 벌써 몇번에 노도협착증치료를 위해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나빴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집단의 방조속에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찾아

###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관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민정쟁을 바치시옵소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몇해전 여름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오른 려객들중에는 평안북도인민병원 비뇨기과 의사 김성호동무도 있었다.

열차의 창가로는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움 모습 이 언뜻언뜻 비껴들며 려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겼지만 그만은 채서인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있던 일을 생각 하고있었다.

몇달전 병원에는 구장군에서 온 한 로동자가 입원하였다. 벌써 몇번에 노도협착증치료를 위해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는 대단히 나빴다. 하지만 김성호동무는 집단의 방조속에 고심하던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뜨거운 진정과 혁신으로

###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김성호동무는 중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서인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올랐던 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자들을 불러놓고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는 학생의 실미 리를 드디어 찾았다.

김성호동무는 지체없이 도인민병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로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가는 그를 과학명철성동무를 비롯한 파의로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김성호동무는 보다 전투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로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가는 그를 과학명철성동무를 비롯한 파의로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김성호동무는 보다 전투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 뜨거운 진정과 혁신으로

###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김성호동무는 중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서인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올랐던 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자들을 불러놓고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는 학생의 실미 리를 드디어 찾았다.

김성호동무는 지체없이 도인민병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로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가는 그를 과학명철성동무를 비롯한 파의로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김성호동무는 보다 전투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 뜨거운 진정과 혁신으로

###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김성호동무는 중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서인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올랐던 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자들을 불러놓고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는 학생의 실미 리를 드디어 찾았다.

김성호동무는 지체없이 도인민병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로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가는 그를 과학명철성동무를 비롯한 파의로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김성호동무는 보다 전투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 뜨거운 진정과 혁신으로

###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김성호동무는 중환자들이 수시로 제기되는 바쁜 속에서도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서인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평양으로 달리는 열차에 올랐던 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자들을 불러놓고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는 학생의 실미 리를 드디어 찾았다.

김성호동무는 지체없이 도인민병원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한 로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가며 지혜와 열정을 장그려 바쳐가는 그를 과학명철성동무를 비롯한 파의로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김성호동무는 보다 전투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 개막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부문 7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개발한 500여건의 프로그램이 출품되었다.

17개의 전시분과와 2개의 경연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지 대학, 학교 등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부문 7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개발한 500여건의 프로그램이 출품되었다.

17개의 전시분과와 2개의 경연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지 대학, 학교 등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부문 7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개발한 500여건의 프로그램이 출품되었다.

17개의 전시분과와 2개의 경연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지 대학, 학교 등에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친만직식을 따듯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친만직식을 따듯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친만직식을 따듯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친만직식을 따듯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

##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지난 20일부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시작된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과 남의 상봉자들은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전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상봉들에서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이 땅의 친만직식을 따듯이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24일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26일 북과 남의 혈육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작별



제16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 개막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북남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끝났다



#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 - 조선

##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장엄한 화폭을 세계 언론들이 찬탄

인민은 어느때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바로 이런 인민을 하늘처럼, 스승처럼 여기고 생애의 순간순간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오시었고 한생의 총화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지으신 위대한 어머니당의 창조자이시며 영도자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이 땅 그 어디에나 깊이 숨

###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연설은 삼시에 온 행성을 격동시켰다.  
로씨야, 쿠바, 벨라, 일본, 인디아, 파키스탄, 영국, 도이쉴란드, 에스빠냐, 에리트레아, 민주콩고,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 페루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들이 애민의 정 넘치는 연설내용을 특대소식으로 광범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영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당의 위대한 것은 인민의 위대한 것이고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말씀하신대 대해 각별한 주목을 돌리었다.  
미국의 AP통신은 열병식에서 자신 감 있게 연설 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언제나 조선로동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허락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

배어있는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을 가슴뜨겁게 품어코보게 되는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또한 한복의 인민적정도자에서 지니신 숭고한 애민관, 인민관을 절감하였다.

###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울 강조하시었다고 신속히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인장께서는 인민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로동당은 불개의 당이라고 언명하시고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강구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가격의 원천이라고 평가하시었다고 오자미도신문 《노르웨이서》는 보도하였다.  
시작부터 마감까지 장장 70분상 우리 당이 그토록 중시하고 정을 다해 보살펴온 인민으로 일관되고 구결구결 열사복무정신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국제사회에 준 충격은 비할바없이 컸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었다고 하시며 당의 지도자, 조연자, 창조자도 내세워주신 인민.  
너무나 평범한 이 두 글자에서 세계는 위대한 수평성들을 모시듯 인민을 받들라고 열렬히 호소하시며 인민중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는 신인민적령도자의 모습을 뵈었다.

하기에 출판보도물들은 당을 따라 단단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시고 그 경거를 눈빛들을 그려보시며 확신과 믿음으로 총탄원연설을 하시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 보무당당이 광장을 지나는 열병대들과 격정의 환호를 더치는 시위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지는 영상들을 정중히 보시었다.

###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특히 후세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들로 든든히 자리나고있는 조선소년단총대가 시세총현하여 행진할 때 그 모습에 너무나도 장하고 대견하시어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를 지시고 오레도록 손을 저어주시던 자애로운 위인의 영상을 거듭 보시었다.  
대해같은 인민사랑과 숭고한 후대사랑의 체현자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국제사회에서는 그이를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분》, 《현실이 겸손하고 인자하신분》,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분》, 《세심하고 자애로우신분》, 《위풍있으면서도 친절하신분》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연재인가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고결한 인민관에 대해 이렇게 전한바 있다.  
창건거리 열병집회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신 김정은원수께서는 새 집을 찾아갈 때에 성냥을 가지고가는데

이 조선인민의 총애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어 가정용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집식구들과 방바닥에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오 그들과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자식들의 앞날도 축복해주셨으며 친히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었다.

###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련대장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고계신다.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은온갖가서 배우시는 사랑에 감동시키고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하디면 김정은령도자께서 어떻게 되어 인민들로부터 그처럼 열렬같은 사랑을 받고계시는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조선의

령도자께서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김보자신문 《크마에 아마파》,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루드》는 인민을 위하여 령도자도 일꾼들도 있다는것,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정치철학으로, 생의 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위인의 투철한 인민관을 칭송하였다.

### 세계가 뵈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의 모습

신문들은 김정은각각께서는 일꾼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대하여 당부하시었다. 이것은 그이께서 자신앞에 내세우신 요구이기도 하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각께서 배우시는 사랑에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같은 일념에 일치되고자 서하였다.

### 세계가 접한 령도자와 인민의 피 줄이 은 인민

돌켜보면 기나긴 인류사는 많은 정치가들과 위인들을 기록하였다.  
그중에는 인민을 포괄하며 로동계급의 당, 인민의 정권을 세운 정치가들도 있었고 인민만세, 만민복지를 제창하며 민주사회건설을 이끈 위인들도 있었다.  
하나 인민과 혈연의 정을 맺고 인민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며 번영하는

하고있는것이다.  
이 세상 그 누가 만들어낼수 도 흥내낼수 도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소개하면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도는 세상한창이 열아붙는 거울에 닮듯한 불을 느끼게 한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믿음의 뉴대를 잇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지구인력파도 같은 령도자와 조선인민의 혈연관계를 백록탄으로 가르지 못한다는 진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느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신앙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대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치라고 부르고있다.》

### 세계가 접한 령도자와 인민의 피 줄이 은 인민

령도자의 두리에 친접한것의 생애를 이루고 그러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천만국민의 불굴의 의지는 10월의 대추전장을 위훈은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에서 뚜렷이 분출되었다.  
각각 언론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멸의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사, 독창적인 청년정치로 세상에 불도 없던 백두산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화유적보존사업을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로 그리고 대공민들이 지닌 법칙의무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최근 로씨야에서 모스크바 크레믈린의 탐들을 장식하고있는

### 세계가 접한 령도자와 인민의 피 줄이 은 인민

불은벌의 형성도안은 두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그리하여 적 동광으로 도출한 구조물들은 7 000개의 배근하게 세공된 황옥과 수정으로 장식되었다. 1 t에 달하는 불은벌의 무게 때문에 넓은 탐들이 무너지지 않게 그 보편에 선차적인 의의를 품고있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에 의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러한 정력에 의해 력사발전의 중추로 남아있는 크레믈린의 불은벌들은 로씨야 인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모스크바 탐사관측기자 박준식

## 치졸한자들이 돈주머니를 흔들어댄다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어찌러운 과거와 결별하기 몹시 싫어하고있다. 최근 유엔주재 일본대표관은 유엔총회에서 일본군정죄에 등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를 폄하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하여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문제는 이미 정리되었다고느니 뭐니 하는 나팔을 불어댄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이미 해결되었으니 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런 소리를 하였다고 볼 때 일본반동들의 횡행피괴와 도덕적저열성을 다시금 까발려보지 않을수 없다.  
지난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일제가 해당 나라 인민들에게 들은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특히 일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천후에 용납할수 없는 악독한 죄행은 인류력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을 전대미문의 식민지이자 조종자의 압축속에 몰아넣고 국악무대도 배상안달할만큼 특대형범죄를 저지르며 배상은 고사하고 언제 한번 사죄와 배상을 똑똑히 한 때가 없다.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왜 유엔주재에서 오늘까지 그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죄와 배상은 범죄적사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과거 범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하기 위해 력사의 꾀책속에 매여달리며 별의별 오그람수를 다 쓰이고있다. 성노예문제만 놓고보아도 그

런다.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증거가 있으면 내용이 바뀔다느니 뭐니 하는 말발들이 튀어나오고있다. 이처럼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를 오늘까지도 한사코 부인하는자들이 과거사문제를 도대에도 저들의 행위를 해명하였다는것인가. 이것은 과거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것을 일본 자체가 스스로 립증해주는 당혹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엄중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일본반동행위들에 대한 선근한 사죄와 배상을 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이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오그람수를 쓰고있는것이다.  
미국방에서 일련의교관들이 최악의 력사적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심에 의해 세워진 일본군정죄에추모비를 그 무순에 제정하러온 미끼로 철거해보려고 흥청하는 추태를 부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최근 중국남경대학살자리의 세계적 억울산통에 반발하여서도 그런 유죄한 반군에게 매달리고있다. 일본반군관방들은 중국당국이 유네스코에 유산으로 신청한 문물의 전위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느니, 국제기구가 일본이 열심히 분담금을 내어 협력하고있는데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의 기구분담금에 대해 지극중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것이라고 떠들었다.  
물론 이런 엇드메질이 돈이든 만사가 해결될것이라고 보는 일본특유의 간혹한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변하다.

한 회관에 보관되어있는 《자살통곡대》 대원의 유서와 편지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열대전에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범죄적역사를 안고있는 여러개의 신업시 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도 저들의 행위가 유네스코 자문기반의 권고에 따른것이라고 몰장 우겨대던것과 같이 국제기구 대조를 이루는가. 저들에게 필요한 때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리다가도 불리할 때는 뒷문의 돈을 가지고 기구에 샅대질하며 저를가리키는 일본반동들을 국제사회는 엄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다.  
일본의 과거사문제는 반인륜적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도덕적문제이며 국제법적문제이다. 그것은 죄악에 한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도 된다. 국가적범죄와 국가 책임지지는것이 국제법적국가기관은 국제기관이다. 반인륜적범죄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과거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유치하게 돈주머니를 휘둘러대는자들이 똑똑히 명심할것이다. 과거의 범죄를 부인하는 국가는 나중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이전 유네스코 총국장 마르우라 고이씨는 분담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한다면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감이 저하되는데 차를 가하고 무덤을 파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과거정신을 되찾는 일본에 차제일것은 국제사회의 버림밖에 없다.

로씨야는 력사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많다. 이 모든 력사 및 문화유적들은 귀중한 정신적 및 사회적재부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로씨야는 력사 및 문화유적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는것을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2002년 6월 25일에 제백년 력사 및 문화유적보존법안 통과되고는 잘 알수있다.  
이 법은 로씨야연방 다민족인민들의 오늘날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을 담보하고 그 보호사업을 로씨야연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체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체 관들의 선차적인 파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렇듯 로씨야는 력사 및 문화유적보존사업을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로 그리고 대공민들이 지닌 법칙의무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최근 로씨야에서 모스크바 크레믈린의 탐들을 장식하고있는 불은벌의 형성도안은 두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그리하여 적 동광으로 도출한 구조물들은 7 000개의 배근하게 세공된 황옥과 수정으로 장식되었다. 1 t에 달하는 불은벌의 무게 때문에 넓은 탐들이 무너지지 않게 그 보편에 선차적인 의의를 품고있는 로씨야정부의 노력에 의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러한 정력에 의해 력사발전의 중추로 남아있는 크레믈린의 불은벌들은 로씨야 인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모스크바 탐사관측기자 박준식

## 미국의 핵무기 전진배치의 정복의 일본인들

일본의 도쿄에서 18일과 19일 당국이 강행재판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헌 당국이 《집단지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사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 다시방출이 최근 모스크바국제관계대국문제연구소 전문가 안드레이 이와노브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2000년대초에 조선이 남조선, 유럽동맹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경수로제공을 기대하고있을 때 미국은 갑자기 조선이 비밀리에 무기급우라니 조선반도비핵화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내었다.  
그 일로 하여 조선에 대한 경수로제공은 차단되었다. 그에 대응하여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을 내왔고 플루토늄을 재확을 재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핵문제에 관한 6자 회담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매년 일련의 합의에 도달할 때면 미국은 새로운 비

난과 요구를 늘어내었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협상지를 방해하곤 하였다.  
결국 평양은 위상권과의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일본의 핵시힘이 진행되는 걸파가 초래되었다.  
당시 미국정부가 추기한 목적과 관련하여 중국전문가들은 조선이 남조선, 유럽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 개입할수 있는 표면적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스무트니크방출은 평양을 상대로 벌리는 미국의 모든 소용은 조선의 《핵위협》을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미제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라고 폭로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문제는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겨냥한 위상권의 야망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의 핵폐기를 원한다고 믿겠는가.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핵항공모함배치행동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가.》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گان》호가 우리 나라와 지리적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새로 기어든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반공공적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번에도 새로 배비된 《로널드 레گان》호는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후계함이다.  
《조지 워싱턴》호는 67대의 군용기와 약 5 000명의 선원, 방대한 량의 폭탄과 포탄을 적재하고있다. 두척의 순양함과 한척의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척의 함선들로 전단을 이루고있는 이 바다의 거대한 《괴물》은 그 군사적위협성으로 하여 지구상 그 어디에 가나 지역적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미국은 2008년에 《조지 워싱턴》호를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에 배비한후 지난 7년간 이것을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는 기본수단들중의 하나로 리용하여왔다.  
조선반도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임무를 맡고있던 《조지 워싱턴》호는 해마다 조선반도 주변해역에서 벌리는 일본, 남조선과의 해상합동군사연습들에

### 유네스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21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 적들의 심리모략책동 단죄

목적으로 암살하려는 책동이 실패하자 이 나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비열한 심리모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 고온 협상

브라질의 기상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엘니뇨현상은 동부와 서부, 북부의 36도에서부터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40C이상의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주민들이 고 기온을 겪고있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의 위험한 제해권장악책동

참가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일삼고있다.  
이런에 교대한 《로널드 레گان》호로 말한다면 《조지 워싱턴》호보다 후에 건조되어 미해군에 위촉하였다. 그만큼 성능에서 《조지 워싱턴》호를 통가하는 최신에 핵항공모함이라고 말할수 있다. 결국 이번 핵항공모함들의 배비변경내용은 단순한 교체라 아니라 군사적중장기적의 후계함이다.  
《조지 워싱턴》호는 67대의 군용기와 약 5 000명의 선원, 방대한 량의 폭탄과 포탄을 적재하고있다. 두척의 순양함과 한척의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척의 함선들로 전단을 이루고있는 이 바다의 거대한 《괴물》은 그 군사적위협성으로 하여 지구상 그 어디에 가나 지역적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미국은 2008년에 《조지 워싱턴》호를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에 배비한후 지난 7년간 이것을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는 기본수단들중의 하나로 리용하여왔다.  
조선반도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임무를 맡고있던 《조지 워싱턴》호는 해마다 조선반도 주변해역에서 벌리는 일본, 남조선과의 해상합동군사연습들에

의 해상통로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실제로 조선해협과 대만해협, 말라카해협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남조선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놓았으며 대평양의 해상요충지에 위치하고있는 팜도에도 전략적기지와 핵잠수함들을 배비하였다. 이번에도 일본의 요코스카해군기지에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گان》호를 새로 배비한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조지 워싱턴》호는 현재 팜도에 수 많은 타격수단들을 갖추어놓고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팜도의 위협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에게 제출수 있는가.  
《대평양서부 마리아나제도》에 속한 심인 팜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팜도는 미태평양함대까지 있는 하와이로부터 6 000km, 북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대만, 서쪽으로는 필리핀과 각각 2 500km정도의 떨어져있다. 하여 팜도는 서태평양의 해군과 제해권을 장악할수 있는 요충지로 되고있다. 팜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는 리복한 미군의 전략투기기는 12시간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그 어떤 목표도 타격할수 있다. 여기에 바로 조선반도주변해역에 미치는 팜도의 위협성이 있다. 몇년전

미국은 팜도에서 전략투기기가 남조선에 날아드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최대의 위협을 가한 것이 있다. 팜도는 그야말로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장기투입에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적요충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전지로 전변되었다.  
이상에서 보노바와 같이 미국은 주요해상통로장악을 통한 조선반도지배전략을 꾸며놓고 그 실현을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반공공적대외정책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책동은 우리의 전쟁역적력을 배양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반공공적대외정책을 전면적인 반미대결전으로 대응해나감으로써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금성철벽이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압력책동에 대처하여 지역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역력히 다져나갈것이다.  
안 철 권